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Earnings Call Transcript

2026.5.14

Contents

26.1 분기 경영실적	3
기관투자자 Q&A	8
일반투자자 Q&A	20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오퍼레이터]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메리츠금융지주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발표 Conference Call 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리츠금융지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주 IR]

안녕하십니까. 메리츠금융지주 IR 팀 김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메리츠금융지주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발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실적발표 순서는 1) CEO 인사말, 2)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발표, 3) Q&A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Q&A 세션은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의 현장 질문과 일반주주들의 사전 질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주 CEO 이신 김용범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지주 CEO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메리츠금융지주 CEO 김용범 입니다.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발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IR 컨퍼런스콜이 지난 1 분기 그룹의 경영 현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희문 부회장 그리고 화재와 증권의 CEO, 지주 CRO 가 참석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Q&A 세션에서는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 IR]

네. 부회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룹의 2026 년 1 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주 실적입니다.

슬라이드 3 페이지, 26 년 1 분기 경영실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주의 연결 총 자산은 144.4 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6.6% 성장했습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은 6,802 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ROE 는 25.4%입니다. 26 년 1 분기 EPS 는 3,926 원, BPS 는 64,348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18.0%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지주의 세부 경영실적입니다. 26 년 1 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6,802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손익 감소와 중동발 리스크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계열사별 투자 수익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다음 5 페이지입니다. 주요 계열사별로 별도 당기순이익은 화재가 4,661 억원, 증권 3,004 억원, 캐피탈 470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화재는 호흡기질환 청구 등 의료비 증가로 예실차 이익은 감소했지만, 투자손익 개선이 지속되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습니다.

증권은 자산운용 실적을 필두로 전 부문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30.2% 증가한 3,004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캐피탈은 투자이익 증가와 충당금 환입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66.0% 증가한 당기순이익 470 억원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자본 변화입니다. 6 페이지입니다. 지주의 26 년 1 분기 연결 자산은 운용자산의 꾸준한 증가로 25 년말 대비 약 6.6% 성장한 144.4 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지속적인 자사주 취득에도 전년말 대비 4.8% 증가한 11.8 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입니다. 지주의 1 분기 기준 ROE 는 25.4%,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2.1%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ROE 와 안정적인 이중레버리지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 년 1 분기 EPS 는 3,926 원, BPS 는 64,348 원으로 주당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8 페이지, 그룹 부동산 익스포저와 대손비용 현황입니다.

1 분기말, 그룹 부동산 익스포저는 29.6 조원입니다. 국내는 25.7 조원, 해외는 3.9 조원으로 이 중 선순위 대출 비중은 91%이며, 평균 LTV 는 약 47%입니다. 여전히 양질의 자산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분기 총당금 및 준비금 순 적립액은 일부 총당금 환입 효과로 -116 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1 분기 수익증권 감액 역시 58 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96 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 페이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26 년 1 분기 이행현황입니다.

3 월말 기준 블룸버그 기준 fwd PER 은 6.9 배로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14.6%입니다. 요구수익률 10%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당사는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3 년 주주환원정책 발표 이후 누적 TSR 은 169.6%입니다.

지난 3 월 26 일 총 7 천억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4 월말 기준 약 1,461 억원 수준인 126 만주 취득하였습니다.

공시 드린 기준에 따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투명한 주주환원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계열사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 페이지, 화재입니다.

26 년 1 분기 화재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4,661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습니다. 보험금 예실차 이익 감소 및 손실부담계약비용 증가로 보험손익은 감소했지만, 주식평가 이익 증가 등 투자손익 개선이 지속되며 이를 상쇄했습니다.

보험손익은 3,346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늘어난 호흡기 질환 청구와 표적항암치료비 증가로 예실차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투자손익은 2,962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했습니다. 주식시장 강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FVPL 평가 및 처분손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일부 환입 등이 투자손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1 분기 부문별 손익입니다. 장기 인보험 시장은 해지율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당사는 수익성 높은 신계약에 집중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보장성 인보험 매출이 21.0% 성장한 월평균 114 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매출이 증가했으나 사고율 및 건당 손해액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일반보험은 매출 증가와 함께 손해율 개선이 동반되며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13 페이지는 CSM Movement 와 신계약 CSM 전환 배수입니다. 1 분기 CSM 규모는 11 조 2,917 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880 억원 증가했습니다. 신계약 CSM 은 4,403 억원, 이자는 888 억원 증가했으며, CSM 조정액으로 369 억원 감소했습니다. 분기 CSM 상각액은 약 3,041 억원입니다. 1 분기 CSM 전환배수는 12.6 배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이익률과 K-ICS 비율은 15, 16 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분기 투자수익률은 5.4%로 전분기 대비 개선되었으며, K-ICS 비율 잠정치는 24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입니다. 슬라이드 17 페이지입니다.

26 년 1 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2,543 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했으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3,004 억원으로 30.2% 상승했습니다. 캐피탈 배당수익 제외 시 별도기준 2,331 억원을 시현하며, 전년동기대비 52.4% 상승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우호적 증시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양호한 딜 소싱에 집중하여 전 부문 우수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18 페이지, 부문별 영업수익입니다. 26 년 1 분기 기업금융 손익은 양호한 딜 실적과 충당금 환입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습니다. 금융수지는 작년 대출 이자수익 호실적의 역기저효과에도 기타 이자수익의 고른 증가로 견조한 실적을 지속했습니다. 자산운용은 선제적인 주식 포지션 확대 등 유가증권 투자 이익 확대와 기투자자산의 배당 증가가 수익 확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위탁매매 및 자산관리 부문은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고객 유입과 예탁자산 증가에 힘입어 중개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리스크 관리 지표입니다. 연결기준 NCR 은 총 위험액 감소 영향으로 1,638%까지 상승하였으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4.2%를 기록하였습니다.

캐피탈과 그 외 부문별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투자자 Q&A

※ 진행자 및 오퍼레이터 멘트는 생략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Q1.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양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건설자재 수급이나 공사 사업장 중단이 대두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 관련 보험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두 번째는 최근에 타 증권사가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리츠증권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 하고 계시다면 계획이나 타임라인 공유 부탁드립니다.

A1.

지주 CRO 오종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고환율·고금리 영향, 고물가로 인한 공사 사업장 중단 영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험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환율과 고금리 영향입니다. 당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환율과 금리 상승 위험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계열사 해외 자산들의 환 헤지 상황을 점검하여 오버헤지 상태를 제거했고, 국채 풋옵션 매입을 통해 단기 금리 급등에 대비한 헤지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당분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가로 인한 공사 사업장 중단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공사비 상승 문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모든 부동산 PF 딜에 대해 우량 시공사 또는 신탁사의 책임준공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사 사업장 중단으로 인한 위험은 해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보험 관련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서쪽의 선박과 적하 보험은 총 16 건이며, 현재 발생한 손실은 없습니다. 16 건 모두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의 손실액은 건당 200 만 불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환율·고금리 상황은 작년부터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공사 중단과 선박 보험 역시 적극적으로 해지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사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A2.

증권 장원재입니다. 당사도 글로벌 디지털증권사인 Webull 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는 해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당사는 단순한 거래 중개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모음 커뮤니티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확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OUM(모음)’ 정식 출시 이후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 활성화, 당사만의 특화된 AI 를 포함한 콘텐츠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3.

증권 쪽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증권의 신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 플랫폼 출시를 통해서 달성하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나 저희가 타사 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4.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부터 리테일쪽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특히 해외주식 쪽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 쪽이 좋았는데, 저희 플랫폼 내에서 여전히 해외 대비 국내 거래량은 크지 않은 수준인지, 혹은 앞으로 이 부분을 만회할 전략을 가지고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A3.

증권 장원재입니다. 먼저 신규 플랫폼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MOUM(모음)’은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글로벌 커뮤니티 기반의 정보공유’ 및 ‘플랫폼내 AI 기능 강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증권사 앱이 ‘매매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UX/UI 개선’에 치중하였다고 한다면, ‘모음’은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최신의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의 정보를 여과없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거래 규모는 최근 월 200 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정작 테슬라가 급등할 때 미국 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에는 투자자들의 생생한 리얼 반응은 어떠한지 등 실시간 현지 투자 커뮤니티의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음’은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투자자들의 실시간 토론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여기에 ‘모음 AI’가 언어장벽을 제거하고 맥락을 더하여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입체적인 투자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모음이 투자자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머스트 투자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보 의존성’에 기반한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4.

이어서, 국내주식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년말 무료수수료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채 2 년이 안된 현재 시점에 당사의 해외주식 중개 부문이 업계 시장점유율 1~2 위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내주식 성과는 부족하지만 국내주식 역시 유의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 국내주식 약정액이 24 년 대비 25 년에 14 배 증가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 하였으며, 올해 국내시장 활황에 힘입어 26 년 4 월까지 이미 작년 연간 약정액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규고객 대상의 미국주식 무료 수수료 프로모션이 중단되었지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기존고객, 신규고객을 불문하고 무료 수수료 프로모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거래대금 증가와 더불어 활동고객 수와 거래량 지표 모두 꾸준히 우상향하는 등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Q5.

증권 관련된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외에도 주식시장 활황 기조에 맞춰서 자기자본 투자 내지는 이런 쪽에서 주식 익스포저를 확대하면서 추가 기회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증권 쪽에서 이런 투자 방향성에 변화가 있으면 언급 한번 부탁드립니다.

Q6.

두 번째로는 저희 증권도 1 분기에 시장 활황에 맞춰서 되게 좋은 실적을 내주셨는데, 혹시 특이사항으로 언급해 주실 만한 일회성 요인이 있는지, 또는 증권 쪽에서 이익 체력이 어느 정도는 회복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5.

증권 장원재입니다. 작년 이후 금융업계의 모험자본 투자 강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에쿼티 투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당사도 이러한 큰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식 익스포저를 확대하고 운용 역량을 내재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quity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4 월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하여 AI 본부를 신설하였고, 기존 주식운용본부 내 우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조직 확대 및 인력 충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사적으로 주식 익스포저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지분투자 역시 확대하고 있어 Equity 부문의 운용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룹 계열사 간 공동 출자 시너지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이익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 1 분기에는 정부의 코스닥 정책 강화와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IPO 시장 활황을 예상하여 그룹 공동으로 코스닥벤처펀드에 신규 출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기사금융조합 등을 통해 국가 수소인프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미코파워', AI 반도체의 '퓨리오사 AI', 세미파이브' 등 우량 중견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6.

증권 김종민 대표입니다.

이어서 증권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 분기 증권 실적은 사업 부문 전반의 체질 개선과 일부 일회성 환입이 반영된 성과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금융 부문은 작년 1 분기 호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도 안정적인 이익체력을 바탕으로 수수료수익 등이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으며, 일부 총당금 환입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 부문은 국내주식 운용 수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장성 주식 포지션 확대와 운용 역량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기민하게 대응, 채권 손익 역시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부문의 펀더멘털이 강화되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퍼 365 계좌를 통한 온라인 기반 확대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리테일 고객 자산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위탁매매수수료와 Wrap 자산관리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이 조화롭게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정리하면, 1 분기 증권 실적은 일반 기업금융과 리테일 등 신규 사업 확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적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운용 전략 변화 등에 따른 운용 성과 확대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Q7.

화재 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GA 신계약이 지난 3 분기부터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와는 1 분기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업계 측면의 변화와 회사 자체 전략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A 채널 외에도 올해 신계약 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Q8.

두 번째는 손해율 쪽인데요. 손해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업계 대비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율 흐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7.

화재 김종현입니다. 먼저 신계약 시장 전망과 당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보험 시장은 작년에 시행된 해지율 가이드라인 및 올해 시행 예정인 손해율 가정 정상화에 따라 업계 전반의 신계약 수익성 악화가 예상됩니다. 동시에 지난 2~3 년간의 출혈경쟁의 결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적자출혈 경쟁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 인보험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역 성장 중입니다. 연말 수수료 제도 변경으로 인해 마지막 절판이 예상되나, 이 변수를 제외하고 이러한 흐름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당사의 원칙과 전략은 변함없습니다. 수익성이 확보된 신계약에만 집중하는 기조입니다. 적자 출혈 담보를 판매하던 경쟁사들이 수익 훼손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언더라이팅을 제한하는 등 스탠스를 변경하는 동안 당사는 변함없는 일관된 원칙으로 GA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것이 M/S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 분기 GA 장기 인보험 신계약은 전년동기 대비 30% 성장하며 시장 평균을 압도했습니다. 장기간 출혈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인내한 결과가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는 전속채널인 TA, TM, 파트너스 채널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여 채널 포트폴리오 다변화 역시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동 채널들 역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사의 현재의 GA 채널 입지 확대는 일시적인 수혜가 아니라 원칙을 지켜온 결과가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8.

이어서 손해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장기보험 손해율 호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차이입니다. 지난 IR 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향후에도 이러한 당사의 핵심 경쟁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부터 외형 중심의 경쟁을 지양하면서 고수해 온 수익성 중심의 언더라이팅을 통해 구축된 우량 계약 빈티지의 가시적 성과입니다. 최근 업계 전반에서 관찰되는 손해율 상승은 단기 이익 확대를 목적으로 유입되었던 부실 계약들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당사는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배제하고, 수익성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상품의 프라이싱과 언더라이팅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보유계약 포트폴리오는 타사 대비 부실 계약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으며, 그동안 누적된 우량 계약들이 전체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 중심의 신상품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신계약 가치 창출 능력의 확대입니다. 당사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신담보 및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계약 매출 체력이 올라왔고, 양질의 우량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전체 보유계약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의 양호한 손해율 지표는 과거부터 견지해 온 원칙 있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 신계약 확대라는 가치 창출 능력이 결합된 본질적인 성과입니다.

이러한 당사와 경쟁사 간의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및 언더라이팅 체계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현재의 업계 대비 양호한 손해율 흐름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9.

화재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2 분기에 반영되는 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 영향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반면 간편보험 손해율 가정 반영은 연말로 밀렸다고 하는데, 그 영향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0.

두 번째로 K-ICS 비율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신계약 성장과 주주환원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안정적인 K-ICS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9.

화재 김중현입니다. 먼저 2 분기에 반영되는 손해율 및 사업비 가정 세척개정 영향에 연도말로 유예된 간편보험 손해율 효과까지 포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연도말로 유예되어 있는 간편보험 손해율 가정 세척개정 내용을 포함한 모든 개정 사항을 2 분기에 일괄 반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효과가 2 분기 재무제표에 완전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IR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그동안 최선추정 가정을 원칙으로 신규 담보 손해율은 이미 90% 이상으로 설정해왔고, 비실손 갱신 담보 손해율도 100%로 가정하여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해왔습니다.

6 월 새로이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수 있고, 구체적인 효과 측정이 아직 진행중이라 이로 인한 효과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재무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10.

화재 CRO 오종원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ALM 을 통해 금리 위험을 적극적으로 헤지하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신계약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과 신계약 증가로 인한 K-ICS 비율 하락 위험은 없으며, 주주환원정책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추가로 K-ICS 비율의 관리 목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주주환원정책과 신계약 성장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한 적정 K-ICS 수준을 1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도 당사 내부 판단 최소 유지선인 150%를 지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Q11.

화재 관련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투자 손익 중에서 이번에 일회성 요인이 있었으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OCI 유가증권에서 주식 투자자산이나 이런 게 증가하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은데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Q12.

두 번째로, 저희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예실차가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A11&12.

화재 김중현입니다. 1 분기 투자 부문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 분기 채권 교체 매매 처분손실과 이와 같은 일회성 손익은 없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이익은 약 380 억 증가했는데, 주가 상승 등으로 FVPL 평가 및 처분손익이 약 280 억 증가했으며 일부 충당금 환입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시장 강세를 예상하여 작년 말부터 익스포저를 확대해온 결과입니다.

1 분기 중 주식형 자산 규모는 전년말 대비 약 3,300 억원 증가하였으며, 운용자산 내 주식자산 비중도 약 0.8%p 상승했습니다.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PL 과 OCI 자산으로 구분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 주식형 자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은 약 910 억으로 이중 860 억이 PL 로, 50 억이 OCI 로 분류되었습니다. 시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성 높은 자산에 집중한다는 투자 원칙 아래, 시장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운용자산의 질적 다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투자 목적의 국내외 주식투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실차 설명입니다. 이번 1 분기 예실차는 -88 억입니다. 작년 말 손해율 실적을 반영하여 손해율 가정이 직전 대비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예실차 이익은 감소한 반면 CSM 상각액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과거 대비 호흡기 질환 청구 및 표적항암치료 이용건수 증가 영향으로 실제 지급 보험금이 예상치를 일부 상회하며 1 분기 예실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이는 분기 단위의 단기 변동이며 연간 흐름은 플러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 Q&A

※ 진행자 및 오퍼레이터 멘트는 생략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Q1.

메리츠증권은 IB-리테일-트레이딩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요? PIB 등 다양한 시도에 대한 성과, 그리고 증권 내 유기적 협업으로 좋은 투자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 중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1.

증권 장원재입니다. 당사는 전사적 역량을 하나로 묶는 '투자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금융이나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이 소싱한 우량한 딜을 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고객별 맞춤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의 강점인 양질의 딜 소싱을 기반으로 채권이나 DLS 형태로 구조화된 다양한상품을 리테일 채널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자본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들은 기관투자자급의 우량한 투자 기회를 선점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투자하는 상품에 고객이 함께 투자하거나 회사의 후순위 투자를 통해 손익차등형 구조로 설계하여 상품을 공급합니다. 이는 회사가 리스크를 함께 부담할 만큼 자신있는 딜만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당사가 기존에 투자했던 건 중 만기가 짧아져 유동성이 확보되고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딜들을 선별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중단기 고금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리테일 고객 대상 채권과 인하우스 상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우량 딜 소싱-정교한 구조화-안정적 공급'의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여 부문 간 시너지가 당사만의 차별화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채널과 상품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